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강화

부패방지 리플릿 배부 부당이득 수수 금지 강조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청렴 홍보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공

무원 행동강령 요약 게시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 제작해 관련 홍보 리플릿과 함께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부한 청렴 홍보 자료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리플릿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게시문 리플릿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등 3종이다.

도교육청은 이 청렴 홍보자료를 기존 게시장소나 교직원 또는 민원인이 많은 장소에 게시해 모든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달라고 각급 학교와 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일부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등에는 직무를 회피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을 쓸 것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실전처럼’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 실시

전북대 교수·전임입학사정관 3인 1조로 개별면접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8일 학부모와 고교생들을 대학에 초청, 실전과 같은 모의면접을 실시해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모의면접은 고교-대학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모의면접에는 교수와 전임입학사정관들이 3인 1조의 면접조로 참석해 실전과 같은 개별면접 형식으로 진행돼 학생부종합전형을 체험하기 위한 고교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실시된 '2018년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 행사는 오전과 오후조로 편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치러지는 면접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이날 면접 체험행사는 도내 각급 고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50여명의 개별 모의 심층면접이 전공교수 및 교수위원 입학사정관, 전임입학사정관 등 3인 1조로 구성된 50여명의 면접위원들에 의해 학생 1인당 약 15분 동안 실재와 같이 진행됐다.

여중문 입학본부장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공교육



전북대학교가 8일 학부모와 고교생들을 대학에 초청, 실전과 같은 모의면접을 실시했다.

내실화에 기여하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좀 더 자신감 있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

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강동규 대학원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전북대학교 강동규 대학원생(고분자나노공학과·지도교수 정광운)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2018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및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강 씨는 1천만 원 이내의 등록금과 생활비, 2천만 원의 학술활동비 등 3천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2년 동안 지원받는다. 2년 후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1년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강 씨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을 통

해 '메조전의 상분리 및 상전이 특성'에 이용한 스마트 열 제어 유기소재 개발'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과제의 세부 내용은 신규 메조전 분자를 기반으로 중합유도 상분리 및 온도 상승에 따른 상전이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산업 등에서 사용될 기능성 열제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은 강 대학원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과학자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연구를 통해 원천소재 산업의 기술력을 크게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규 대학원생은 "이번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으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우수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남다른 교육철학으로 학생의 꿈 키운다

남성고, 특수목적대 합격률 탁월

도내 자율형 사립고인 남성고(교장 박영달)가 2019학년도 경찰대·육사·해사·공사 등 특수목적대 1차 입시 경쟁률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 눈길을 끈다. 지난 6일 발표한 경찰대학교 1차 시험에서 무려 5명의 남성고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또 7일 발표된 각 사관학교 1차 합격자에서도 남성고 출신 27명이 합격했다.

사관학교별 합격자는 육사 10명, 해사 10명, 공사 7명 등이다.

이들 최종 합격여부는 11월중순께 발표된다.

남성고가 이처럼 특수목적대 1차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것은 교육환경에



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데도 학생들에 대한 집중 입시교육과 함께 전략적인 입시지도가 주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치러진 2019학년도 특수목적대 경쟁률은 경찰대학의 경우 57.3대 1을 기록했으며 공군사관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40대 1을 넘어섰다.

육군사관학교도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해군사관학교 역시 38.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각 사관학교가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남성고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당시부터 신입생 유치 및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순태희 이사장의 지역 및 학교 발전을 향한 사람으로 가능했다는 학교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박영달 교장의 교육철학이 맞아 떨어져 입시성적은 물론 학교발전이 날로 상승장기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대 조일영 교수, '마르퀴스 평생공로상' 대체의학·운동처방학 학문 융합·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조일영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가 수여하는 '알버트 넬슨 마르퀴스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일영 교수는 '대체의학'과 '운동처방학'을 융합하는 학술연구 업적과 해당 분야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등재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마르퀴스 후즈 후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일영 교수는 2007년부터 전주대학교 대체의학과 및 운동처방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2008년부터 한국발달장애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심리운동학회 이사, 2015년부터 한국융합학회 WT(Wellness Technology)분과위원장, 디지털 정책 연구 부편집장 및 ICDPM(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조 교수는 심도 있는 학술 연구를 통해 '대체의학'과 '운동처방학' 분야 학문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그는 '발달 장애 저널(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과 '기술과 건강관리 저널(Technology and Health Care)' '국제응용공학(Applied Engineering) 연구저널'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양한 연구 논문을 기고했다. 특히, 2014년에는 국제융합기술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에서 연구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세포에 미치는 초저주파수의 고압 전기장의 치료 메커니즘'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일영 교수는 "이번 수상은 동료 교수님들의 깊은 배려와 전주대 학생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지금까지 비 보건계열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보건·비 보건계열'의 융·복합 학문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 설정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마르퀴스 후즈 후는 매년 예술,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적 인물과 지도자를 선정하여 그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한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조교협의회,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군산대학교 조교협의회가 8일 본부 총장접견실에서 광병선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에는 광병선 총장, 양현호 기획처장, 박인수 대외협력과장, 박동철 조교협의회 회장, 이유미 총무, 차민정·김준호·이세준·김보영 위원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박동철 조교협의회 회장(행정경제학부 행정학전공)은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믿음과 참여의식이 군산대학교가 우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으로, 조교협

의회에서 심심일만 모아온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병선 총장은 "기부 받은 기금을 잘 활용해서 대학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우형 조교협의회 부회장(역사철학부 철학전공)은 발전기금 전달과 관련해서 "학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과 및 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들이 학내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